

10 오피니언

사설

위태로운 학생 자치, 위기의식은 있나

양 캠퍼스 학생회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대부분 단선으로 치러졌고, 투표율도 절반을 겨우 넘겼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 투표를 모두 마지막 날 51%를 넘어서며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조차 간신히 진행되는 지금의 현실, 학생회 총선거에서 번번이 나오는 시행세칙 위반과 관련한 징계, 선거 이후 이의제기로 인한 당선 무효, 허술한 공약은 학생 자치가 보여주는 위기의 징후들이다.

선거기간 동안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개인 번호를 어떻게 알고 투표하라는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 돌렸던데 해명하라” 등 부적절한 투표 독려를 비판하는 글이 많았다. 50%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개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몇몇 후보자는 투표 독려에 많은 힘을 쏟았고,

결국 선을 넘은 것이다.

또한 한 단과대 정후보는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이전의 지위를 이용한 선관위 SNS 계정 접속으로 시행세칙을 위반했고 당선 이후 접수된 이의제기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됐다.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후보자 사진 제출 규정 내용이 없어 출마한 5개 선본 중 1개 선본만 사진을 제출했고, 사진 미제출 4개의 선본이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하는 촌극도 발생했다.

매년 등장하는 허술한 공약도 문제다. 잔디 운동장, 내장형 콘센트 책상, 대동제 상표권 등록과 같은 공약은 대학 총학생회 선거가 내세울 최선의 공약이라 보기 어렵다.

양 캠퍼스가 논의 중인 교양교육 절대평가 시행,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강신청 문제, 융합 전공에서는 폐지를 논의하는 학과가

등장했고 새롭게 선출될 총장과 의 로드맵 등 학생 목소리를 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쌓여있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모르는지 의심스럽다.

대학주보와 VOU에서 함께 주최한 공청회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당선 이후 본부와 협의하겠다” 같은 원론적인 문답만이 오갔다.

50여 년 전 공포에 가까운 탄압이 가해지던 시기에도 대학생은 학원 민주화 요구를 지속해나갔으며 총학생회 부활을 성공시켰던 적이 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전체학생총회’가 양 캠퍼스에서 열리고, 학생들은 한곳에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대학본부에 요구안을 전하던 때도 있었다. 학생 자치의 모습은 진취적인 태도, 역경과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학생들의 의지로서 보존돼왔다. 그리고 대학은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위치에서 상호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선되기 위한 얇은 공약만이 난무하고 유권자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학생 자치는 위태롭게 굴러가고 있다. 학생회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지는 것은 예사다. 대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선거 시행세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 않은 총학생회 당선자는 공약의 내실을 다지고 학생 자치를 진정으로 고민하길 바란다.

지금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지난 50여 년간 역경과 고난을 뚫고 지켜온 학생자치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세시봉

디지털 강국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최근 행정망과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먹통이 된 사태가 네 차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등록초본을 땔 수 없어 가족의 장례를 제때 치르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고 이사를 하고도 확정일자 받지 못해 불편을 겪은 경우도 여럿 있었다. 복지 서류를 떼려 행정복지센터에 온 중증 장애인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고, 온·오프라인 은행 업무도 장애를 겪었다.

이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공무원 행정망 ‘서울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마비 사태 때문이었다. 마비 사태는 사흘간 지속됐고 19일에 비로소 행정안전부가 서비스 복구를 완료했음을 선언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조달청 나라장터 서비스 장애,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접속이 연달아 중지됐다.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수준 높은 디지털화에 감탄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또 자국과 달리 빠른 행정 처리 서비스에 놀라는 모습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런 모습과 명백히 대비된다. OECD와 유엔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디지털 정부, 디지털 강국이라는 국내·외 평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한 사후 대처다. 하지만 사후 대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태 원인인 장비 불량을 밝혀내는 데 무려 1주일이 넘게 걸렸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 서비스 장애가 이번 정권에서만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진짜’ 디지털 강국은 국민에게 설명하기도 입 아픈 편리함을 가져온다. 하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디지털 강국은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만든다. ‘디지털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기보다 성찰과 개선을 통한 ‘진짜’ 디지털 강국이 되길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SNS 의존

‘소셜’의 배신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는 현실과는 다른 인적 관계망 형성 공간이다. 우리는 SNS에서 타인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직접 글을 올리기도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한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자존감을 낮추고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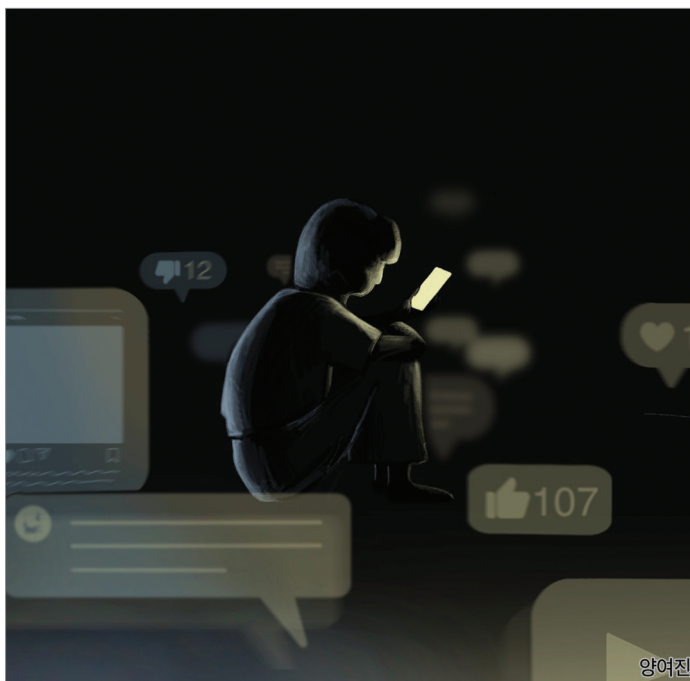
이는 자연스레 본인과 타인을 비교하는 행위를 가져온다. 미국 야칸소대 연구팀은 SNS 사용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SNS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이유로 ‘타인과의 비교’를 언급했다. 궁금하지 않았던 남들의 삶을 보며 저절로 그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SNS 내 ‘숏폼’ 열풍도 사용자의 우울증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주로 짧고 자극적인 영

상으로 구성돼 연이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강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도파민 중독’으로 보고, 이 같은 쾌락에 뒤따라오는 공허함으로 무기력해짐을 경고한다. 숏폼 서비스 또한 정신건강에 해로워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사용자의 행동 변화로부터 나온다. 물론 SNS 제공자인 소셜 플랫폼 회사도 책임이 있다. 페이스북은 과거 “이윤을 우선시하다가 SNS 내 사용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소를 무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로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SNS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정신건강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부터 바뀌면 된다. 무의식적인 피드 스크롤링을 경계하며 SNS 의존도를 낮춰보자. 불필요한 타인의 소식으로부터 해방돼 자신만의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를 통해 남들과는 다른, 뻘하지 않은 나만의 개성과 행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평 공허한 관계망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